

전자부품 등록센터 설치, 운영 계획

1. 개요

본회에서는 브라운관 및 모니터(이하 CRT)의 세계 공통형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자부품 등록센터(ECRC : Electronic Components Registration Center)”를 금년 하반기에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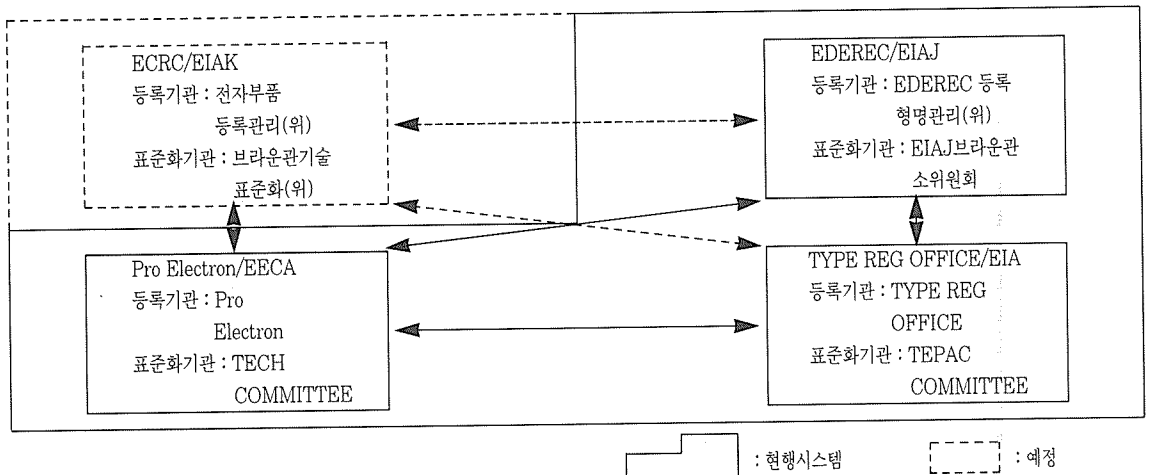
최근 국내 전자업계에 동 등록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CRT 생산국이자 독자적인 설계 및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제품의 해외홍보 및 기술정보 교류의 부진과 국산제품의 해외등록기관에의 등록 및 관리상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케 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의 CRT 생산업체 3개사(금성사, 삼성

전관, 오리온전기)와 본회간의 수차례 회의와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국내의 형명등록 업무를 본회에 등록기관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 WTDS 체제의 구성과 현황

세계 공동의 형명등록 각국이 독자적으로 형명을 부여해 오던 것을 지난 1982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의 3개 기관(미국 : Type Reg Office/EIA, 유럽 : Pro Electron/EECA, 일본 : EDEREC/EIAJ)에서 브라운관 및 브라운관용 유리,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품목에 대하여 공통의 형명을 부여하는 체제로서 WTDS(World Wide Type Desig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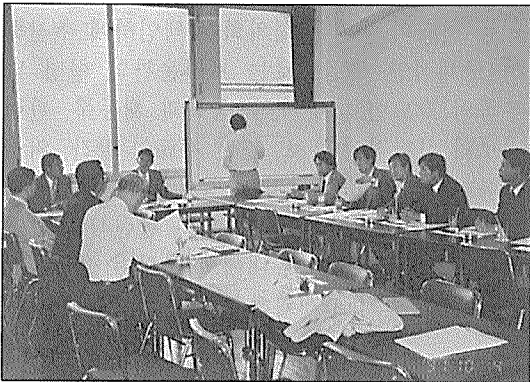
각 등록기관과 그 연대관계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System : 국제공통형명등록시스템)로 불리우고 있다.

이 WTDS 체제는 동 3개 기관의 회원업체간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고유 형명을 부여, 지역간 사용자 및 생산자에게 제품 정보 제공은 물론 기술교류를 행하며 상호 제휴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WTDS 체제는 형명등록의 관리 및 문제, 형명등록 번호부여, 새로운 기술의 표준화 협의, 그리고 등록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기술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등록기관은 등록에 관한 공통의 수속, 양식, 홍보 등을 상호 제휴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CRT 생산업체와 형명등록업무 워크샵 개최 장면

3. 형명등록 해설

현행의 형명등록은 자국내에 등록기관이 없더라도 형명등록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3개 기관(Type Reg Office, Pro Electron, EDEREC) 중 어느 곳에 등록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WTDS 멤버자격은 등록기관의 조직과 형명관리자를 구성하고 자국내에서 설계하는 CRT 기술표준화관련 위원회의 명칭 및 멤버를 구성한 후 3개 기관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등록시 형명의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기호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제3기호는 3개 기관의 지역별 배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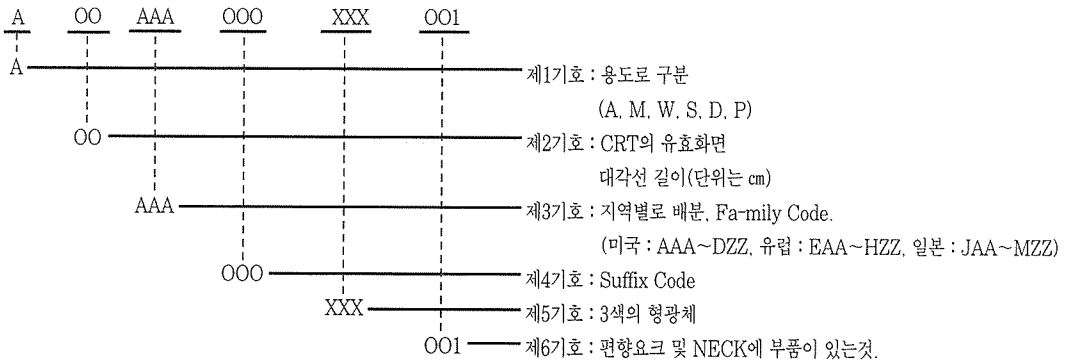
제1기호의 내용 중 A는 TV용 브라운관, M은 모니터, W는 TV용 16:9 브라운관, S는 16:9 모니터, D는 정전 편향방식 CRT, P는 프로젝션용 CRT를 뜻한다.

4. 전자부품 등록센터 설립(안)

가. 산업현황

세계의 CPT 및 CDT 생산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93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명 부여방법 예시>



세계 CPT 및 CDT 생산 동향(1993)

(단위 : 백만개, %)

국 별	생 산 량	비 중
전 세계	152.8	100.0
NAFTA	20.1	13.2
일 본	32.5	21.3
유 럽	21.3	13.9
한 국	34.0	22.3
기 타	44.9	29.3

나. 추진 경위

그동안 국내업계 독자적으로 형명을 부여해 오다가 지난 '90년 5월에 형명 혼동우려의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일본의 형명등록기관인 EDEREC/EIAJ에서 본회와의 형명등록 관련한 밀접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동 “전자부품 등록센터” 설립이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동 9월에는 형명등록 업무를 본회에서 수행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동 10월에 본회에서 일본 EIAJ를 방문하여 형명등록 업무에 관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90년 11월에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WTDS 3국(미국, 유럽, 일본) 회의에서 한국

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91년 10월에는 본회와 관련업체가 일본 EIAJ를 방문, 실무 회의 결과 적극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WTDS 3국회의에서 차기회의시 한국을 초대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관련 실무 워크샵의 결과 국내에도 등록 기관을 설치, 운영키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다. 사업 및 역할

전자부품 등록센터는 본회 내에 전자부품 형명등록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동 센터의 운영은 협의회장 책임하에 추진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브라운관의 형명 및 부품의 코드번호 부여 및 등록과 재등록, 관련 정보의 정기적인 홍보, 관련 자료의 발간, 외국 등록기관과의 등록신청과 정보교류,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의 협력, 기타 관련사업을 수행하며 사무국은 본회 내에 설치하며 설립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기획과

Tel : 553-0941/1 (교 : 53)